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Violence in Childhood :
A Relational Model

정 준 미**

Chung, June Mi

이 재 연***

Lee, Jae Ye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hysically punished experiences in childhood on parents'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their own children. The sample of parents who had be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in childhood was obtained from 4th and 5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ample consisted of 420 parents of which 292 were suitable for this study. Physically punished experiences or parents in childhood influenced aggression, and aggression had an impact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e. physically punished experiences and coping strategy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bu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aggression. Mothers whose parenting attitude was high in the shame were low in use of corporal punishment while mothers high in use of corporal punishment were low in shame.

* 199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I. 서 론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 훈육이나 교육사상의 전수를 위해, 또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수세기 동안 체벌이 정당화 되어 왔다(Radbill, 1974).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체벌은 자녀를 훈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체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구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자녀구타 문제는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구타는 가볍게 손으로 때리는 경우부터 심한 신체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연속선 상에 놓고 보면 윗 부분은 아동학대이고 아랫 부분은 적절한 훈육차원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준하는 폭력(Graziano & Namaste, 1990)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체벌을 의미하는 학대에 준하는 폭력은 부모의 감정이 격화되면 점차 학대(Kadushin & Martin, 1981)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신체적인 학대와 체벌은 관련성이 높으나, 아동학대와 체벌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정의가 없다(Gelles, 1982)는 것이 체벌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체벌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체벌은 아동을 훈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신 및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학대와 같은 연속체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육의 동기가 명확할 때는 체벌이 되고 동기가 불분명할 때

는 학대(안동현, 박현선, 이현정, 1998)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훈육의 동기를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기에 대해서는 체벌자인 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신체적으로 벌을 가하는 부모의 특징으로 가장 자주 보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적절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기에 심한 체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Carroll, 1977; Gillespie, Seaberg, & Berlin, 1977; Webster-Stratton, 1985) 학대가 악순환(cycle of abuse)(Kempe & Kempe, 1978)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악순환은 직접경험 뿐 아니라 목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예: Kalmuss, 198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자녀체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일부변인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으나(Erlanger, 1974; Hyman & Wise, 1979, Hyman, 1987에서 재인용; Straus, 1994;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아버지(편모가정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라는 세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Belsky(1984)에 의하면, 개인의 인성(personality)은 발달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다시 자신이 부모역할(parenting) 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양육행동은 양육태도(Baumrind, 1989)의 영향을 받지만 부모로서 이전에 자녀를 체벌한 것에 대해 갖는 느낌

(Dietrich, Berkowitz, Kadushin, & McGolin, 1990; Muller, 1993)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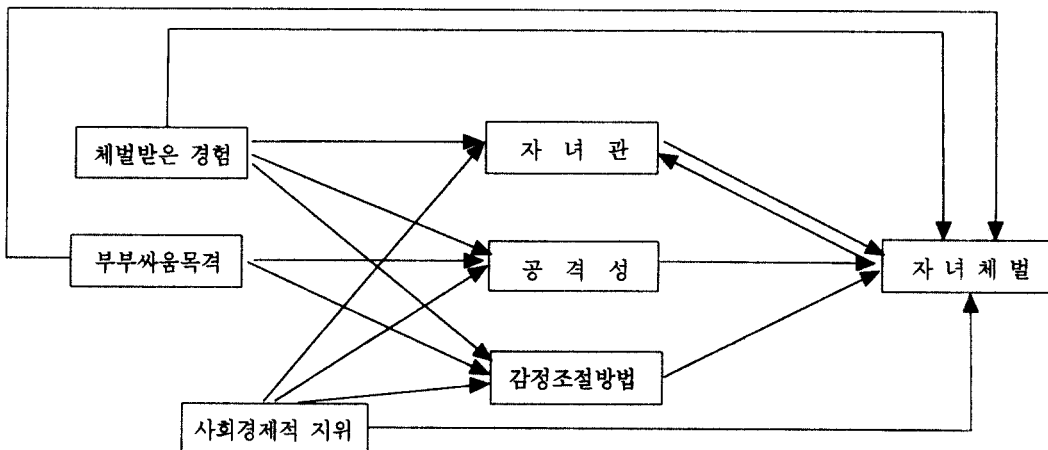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적인 양육경험은 공격적(Hirsh, 1981)이고 충동적(Hennessy, 1994)인 성격을 갖게 되어 높은 수준의 분노와 충동을 표현(Wolfe, 1987)하게 된다(O'Leary, 1993에서 재인용). 이때 부모가 감정조절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체벌에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취하는 양육행동은 자신의 발달력과 동시에 개인의 인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 진행된 체벌에 관한 연구들은 학교 체벌(예; 전미리, 1998)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가정에서의 체벌이나 구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도 구타의 발생률(고복자, 1992; 안동현, 홍강의, 1987)을 조사하거나 전반적인 인식도(김영철, 1993; 한지숙, 1994)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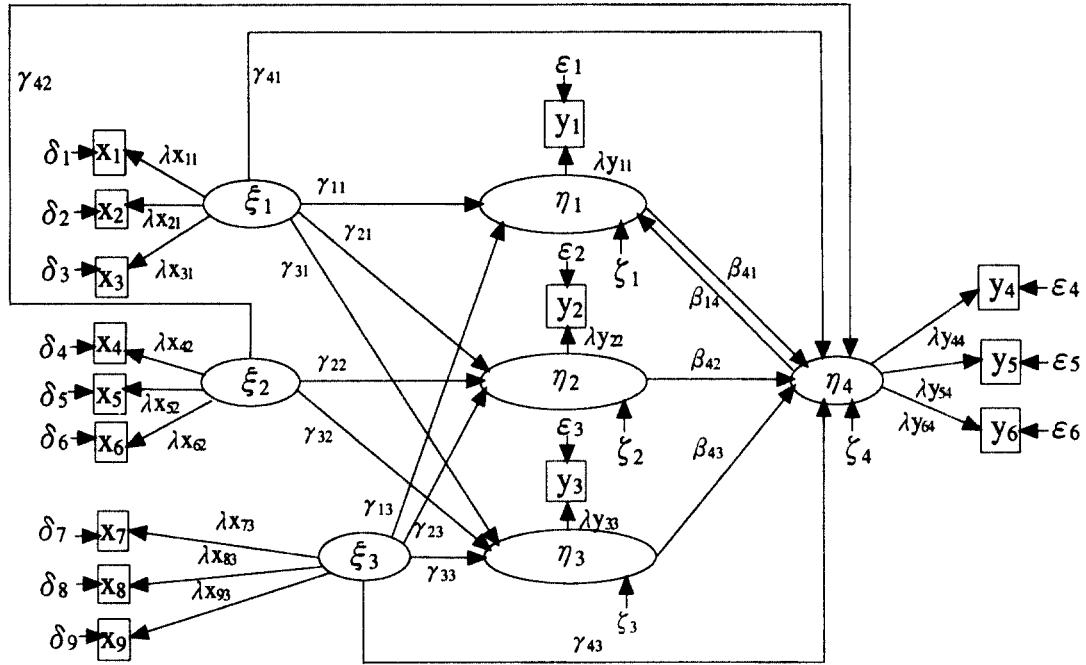
파악한 것이 있을 뿐이어서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고, 부모의 체벌행위나 인성특성이 부모의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체벌받은 경험과 부부싸움을 목격한 것이 자녀관이나 공격성, 감정조절방법 등에 영향을 미쳐 폭력의 잠재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 체벌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직·간접 경험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체벌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그림 1)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모형인 <그림 1>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측정변수와 이론변수간의 가능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2).



<그림 1> 자녀체벌에 대한 이론적 모형



〈그림 2〉 자녀 체벌에 대한 가설적 모형

(외생변수) ξ_1 : 체벌받은경험 ξ_2 : 부부싸움목적 ξ_3 : 사회경제적지위
 (내생변수) η_1 : 자녀관 η_2 : 공격성 η_3 : 감정조절방법 η_4 : 자녀체벌
 (외생변수의 측정변수) x_1 : 경한체벌 x_2 : 중한체벌 x_3 : 매우 중한체벌 x_4 : 정서적싸움
 x_5 : 중한 신체적 싸움 x_6 : 매우 중한 신체적 싸움 x_7 : 직업 x_8 : 교육수준 x_9 : 소득
 (내생변수의 측정변수) y_1 : 체벌후심정 y_2 : 공격성 y_3 : 감정조절방법
 y_4 : 경한체벌 y_5 : 중한체벌 y_6 : 매우 중한체벌
 γ :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가지는 경로계수 β : 내생변수간 경로계수
 λ_x : x에 대한 요인계수 λ_y : y에 대한 요인계수
 δ : x의 측정오차 ϵ : y의 측정오차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들의 평가에 의해 상류, 중류, 하류로 판단되는 서울지역 소재 초등 학교 3개교의 4, 5학년생 부모 292명(부: 33, 모: 256, 기타동거인: 3)이었다. 4, 5학년 아동

의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체벌 경험이 보다 많은 고교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솔직한 응답을 얻기 어려워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아동 부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체벌받은 경험 조사도구

아동기에 체벌받은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Straus(1989)가 제작한 수정판 갈등해결척도 (Conflict Tactics Scales; CTS)와 환경조사 질문지(Berger, Knutson, Mehm, & Perkins, 1988)를 기초로 Muller(1993)가 제작한 갈등해결척도(16 문항)를 연구자가 번안하고 언어적 학대를 대표할 수 있는 1문항(욕을 하는 것)을 추가하여 17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문항에 대해 경험 정도를 '전혀없음(0점)', '한 번(1점)', '두 번(2점)', '3번 이상(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경한체벌, 중간체벌, 매우 강한 체벌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산출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9, .70, .90$ 이고 전체적인 신뢰도는 $.80$ 으로 나타났다.

(2) 부부싸움 목격 조사도구

성장기 동안 부모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쟁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에 대한 목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체벌받은 경험 조사도구와 같은 Muller(1993)가 사용한 도구(16문항)에 언어적 폭력을 대표할 수 있는 1문항을 추가한 17문항으로 수행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없음(0점)'에서 '3번 이상(3점)'의 4점 척도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을 많이 목격한 것을 나타낸다. 17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정서적 싸움, 강한 신체적 싸움, 매우 강한 신체적 싸움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83, .87, .94$,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90$ 으로 나타났다.

(3) 자녀체벌 조사도구

체벌받은 경험 조사도구와 같은 Muller(1993)의 도구에 1문항을 추가한 17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경한 체벌, 중간 체벌, 매우 강한 체벌) 및 채점방식은 체벌받은 경험 조사도구와 동일하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8, .77, .86$ 이고 전체적인 신뢰도는 $.82$ 였다.

(4) 자녀관

자녀관은 체벌과 관련한 양육과정에서의 심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체벌 후의 심정을 측정하였다. 자녀에게 행하는 각각의 체벌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체벌 후에 갖게 되는 심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체벌을 조사하는 도구와 같은 도구로 조사하였다. 응답범주는 체벌 후 미안한 마음이 '거의 들지 않았음(1점)', '보통(2점)', '대체로 들었음(3점)', '그런 행동 안했음(4점)'의 4점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을 나타낸다.

(5) 공격성 척도

자녀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현재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인용으로 제작된 Spielberger와 London(1983)의 분노성향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여러가지 격렬한 정서상태와 비교적 안정적인 인성특성으로 분노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거의 없음(1점)', '가끔(2점)', '자주(3점)', '거의 언제나(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채점되어 공격성을 보인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6) 감정조절 방법 조사도구

감정조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김정희(1987)가 62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의 정서완화적 대처문항들(23문항) 중 예비조사를 거쳐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진술된 대처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없음(0점)'부터 '아주 많이 있음(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조절이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7)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가족의 수입을 근거로 평정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1점)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7점)으로, 부모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무직(1점)에서 전문직(7점)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였다. 가족의 소득은 부부 합산한 것에 대해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100만원 이하(1점)부터 351만원 이상(7점)으로 점수화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 분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편모가정은 어머니)의 직업,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5월과 8월의 2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조사는 1998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급의 담임 선생님께 의뢰하여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를 위임하였다. 총 420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381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는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서는 29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시한 가설적 구조모형은 PC-LISREL 8.03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계수를 산출하여 유의도 검증을 하였고, χ^2 외에 널리 사용되는 부합지수로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들간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외생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체벌받은 경험과 부부싸움 목격 요인들간의 상관에서 경한 체벌받은 경험과 매우 중한 체벌받은 경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한 체벌받은 부모들은 체벌을 많이 받았을수

록 부부싸움의 모든 요인에 대해 많이 목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생변수인 자녀관과 공격성, 감정조절방법간의 상관은 공격성과 감정조절방법만이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정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 공격성을 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녀체벌 중 경한 체벌에서는 부모의 매우 중한 폭력 경험을 제외한 폭력경험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중한 체벌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경한체벌과 같은 요인에 대하여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매우 중한 체벌에서는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라고 할 만한 매우 중한 폭력을 제외하면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자녀를 많이 체벌하고 있으며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경한 체벌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자녀체벌 행동에 관한 가설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대체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몇몇 지수에서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어, 좀더 간명하고 모형에 부합되기 위해 수정하였다. 수정하는 과정 중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모형 안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가설모형의 수정지표를 근거로 경로를 추가하였다. 모형찾기 과정에서 나타난 부합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정모형을 선택하게 되었다.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분석표

변수	Y1	Y2	Y3	Y4	Y5	Y6	X1	X2	X3	X4	X5	X6	X7	X8	X9	
자녀관	체벌후심정 (Y1)	1.00														
공격성	공격성 (Y2)	-.270	1.00													
감정조절	감정조절 (Y3)	.087	-.231**	1.00												
자녀체벌	경한체벌 (Y4)	-.502**	.407**	-.173**	1.00											
	중한체벌 (Y5)	-.636**	.408**	-.157**	.555**	1.00										
	매우중한체벌 (Y6)	-.062	-.013	.056	.084	.143	1.00									
체벌받은경험	경한체벌 (X1)	-.215**	.263**	-.150*	.433**	.222**	.070	1.00								
	중한체벌 (X2)	-.205**	.178**	-.066	.151*	.192**	-.004	.509**	1.00							
	매우중한체벌 (X3)	-.031	.102	-.029	.019	-.031	-.009	.095	.327**	1.00						
부부싸움목력	장서적싸움 (X4)	-.190**	.342**	-.201**	.218**	.162**	-.115	.429**	.323**	.149*	1.00					
	중한신체적싸움 (X5)	-.179**	.143*	-.112	.140*	.181**	-.059	.258**	.399**	.204**	.494**	1.00				
	매우중한신체적싸움 (X6)	-.043	.042	-.040	.068	.052	-.033	.129*	.212**	.188**	.240**	.615**	1.00			
사회경제적상태	직업 (X7)	.022	.014	-.018	.082	-.034	.056	.040	-.020	.079	.037	-.022	.057	1.00		
	교육수준 (X8)	-.045	.090	-.026	.181**	.083	.056	.103	.013	.022	-.048	-.074	-.038	.396**	1.00	
	소득 (X9)	-.002	.094	-.010	.106	.037	.072	.108	.058	.046	-.001	-.073	.019	.368**	.265**	1.00
평 균		58.86	24.82	30.06	12.51	3.30	.09	8.99	1.43	.119	5.13	1.34	.22	4.5	4.3	3.55
표준편차		3.95	5.62	5.19	4.52	3.87	.65	5.05	2.55	.74	2.77	2.69	.98	1.32	1.35	1.69
범 위		42-68	15-47	13-42	1-18	0-18	0-7	0-18	0-15	0-8	0-12	0-15	0-6	1-7	1-7	1-7

* P < .05, ** P < .01, *** P < .001, N =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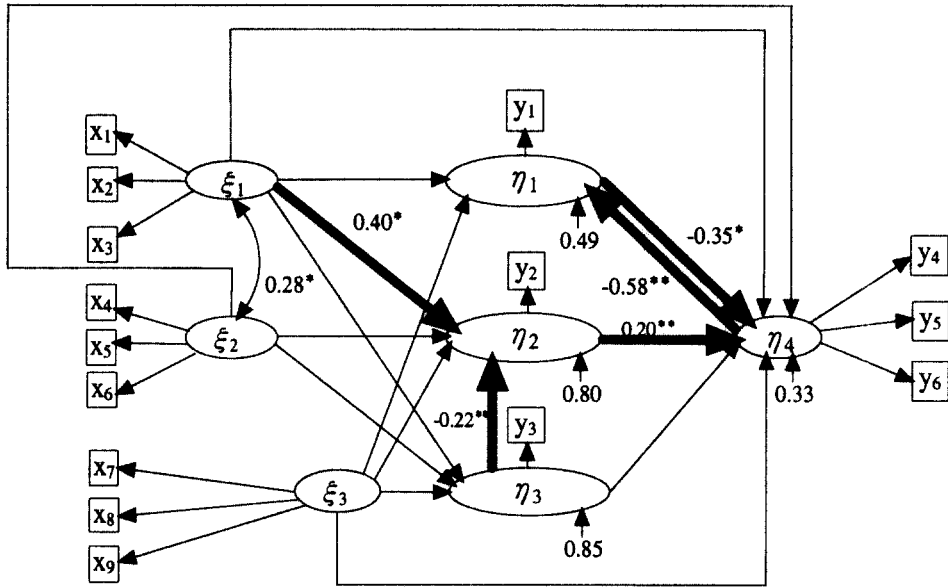
<표 2> 부합지수 비교

부 합 도	χ^2	df	χ^2/df	GFI	AGFI	NNFI	NFI	RMSR	RMSEA
기초모형	1075(.00)	104	10.33	.00	.00				
가설모형	195(.00)	75	2.6	.93	.89	.84	.86	1.07	.07
수정모형	180(.00)	74	2.43	.95	.92	.89	.90	.98	.06

GFI = 기초부합치,
NFI = 표준부합치,

AGFI = 조정부합치,
RMSR = 원소간 평균차이,

NNFI = 비표준부합치
RMSEA = 근사 원소간 평균차이



➡ 는 유의한 통로 * p<.01 ** p<.001 (t값의 유의도 수준)
 ξ₁ : 체벌받은경험 ξ₂ : 부부싸움 목격 ξ₃ : 사회경제적지위
 η₁ : 자녀관 η₂ : 공격성 η₃ : 감정조절방법 η₄ : 자녀체벌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도해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수정으로 확정된 최종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면, 체벌받은 경험이 공격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일 뿐 다른 변수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성장할 때 체벌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적이 되지만, 부부싸움을 목격한 것은 인성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인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생변수간의 관계에서는 공격성이 자녀체벌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감정조절방법은 공격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공격성을 통해 자녀체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녀관은 자녀체벌에, 자녀체벌은 자녀관에 부적인 영향을 상호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공격적일수록 자녀체벌을 많이 하지만, 감정조절을 잘 할수록 공격성의 표출이 적어 자녀체벌을 적게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체벌 후의 심정을 의미하는 자녀관은 체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많을수록 체벌을 적게 하고, 체벌을 많이 할수록 미안한 마음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생변수간의 상관관계(표 3)는 체벌받은 경험과 부부싸움 목격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 자녀를 많이 체벌하는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머지 변인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외생변수간의 PHI 지수

외생변수	ξ_1	ξ_2	ξ_3
체벌받은 경험(ξ_1)	1.00		
부부싸움 목격(ξ_2)	.280*	1.00	
사회 경제적 지위(ξ_3)	.092	-.12	1.00

* p<.01

또한 각 내생변수의 설명되지 않은 변량은 PSI(Ψ)지수로 설명할 수 있는데, PSI지수의 값이 클수록 그 변수를 설명하는 다른 변수가 누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보면 자녀관의 51%($\Psi_1=0.49$)가 체벌받은 경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자녀체벌에 의해 설명이 되며, 공격성은 체벌받은 경험, 부부싸움 목격,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감정조절방법에 의해 20%($\Psi_2=0.80$)가 설명되고, 감정조절방법은 세가지 외생 변수에 의해 15%($\Psi_3=0.85$)가, 자녀체벌의 67%($\Psi_4=0.33$)는 전체모형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것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총효과이다. 〈표 4〉를 보면 체벌받은 경험은 공격성에 직접효과(.40)가 있고 자녀체벌(.08)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간접효과(.21) 및 총효과(.28)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벌받은 경험이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주는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수
체벌받은 경험	-.15(-1.82)	-.17(-2.55)**	-.31(-3.31)***	자녀관
부부싸움 목격	--	-.12(-1.11)	-.12(-1.11)	
사회경제적 지위	.27(1.04)	-.24(-1.29)	.03(.10)	
공격성	--	-.15(-3.37)***	-.15(-3.56)***	
감정조절방법	--	.06(2.28)*	.03(1.23)	
자녀체벌	-.58(-4.61)***	-.15(-2.87)**	-.73(-3.97)***	
체벌받은 경험	.40(2.73)**	.02(.80)	.42(2.82)**	공격성
부부싸움목격	.11(0.40)	.07(1.13)	.18(.64)	
사회경제적 지위	.49(1.08)	.05(.47)	.53(1.15)	
감정조절방법	-.22(-3.60)***	--	-.22(-3.60)***	
체벌받은 경험	-.11(-.81)	--	-.11(-0.81)	감정조절방법
부부싸움목격	-.32(-1.21)	--	-.32(-1.21)	
사회경제적지위	-.20(-.47)	--	-.20(-.47)	
체벌받은 경험	.08(1.21)	.21(3.46)***	.28(2.90)**	자녀체벌
부부싸움 목격	.12(.91)	.07(.88)	.21(1.15)	
사회경제적지위	.30(1.33)	.10(.63)	.40(1.34)	
자녀관	-.35(-4.36)**	-.09(-2.66)**	-.44(-3.97)***	
공격성	.20(6.45)***	.05(4.22)***	.26(6.57)***	
감정조절방법	-.04(-1.32)	-.07(-3.47)***	-.11(-2.63)**	

*p<.05, **p<.01, ***p<.001, ()는 t값

자녀체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격성과 자녀관, 감정조절방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관은 자녀체벌에 미치는 직접효과(-.35)가 유의하며 동시에 자녀체벌로부터 부적인 영향(-.58)을 받고 있다. 또한 공격성은 감정조절방법으로부터 부적인 영향(-.22)을 받으면서 자녀체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20)을 미치고 있었다. 감정조절방법은 자녀체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공격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07)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생변수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체벌한 후에 갖는 감정은 체벌행동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러한 감정은 자녀체벌 후에 자녀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은

자녀체벌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정조절방법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을 받아 공격성을 덜 표출하게 된다. 이들 변수들이 자녀체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 중 공격성(.26)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체벌 행동에는 공격성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외생변인인 환경변인들은 자녀체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체벌받은 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자녀체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인성특성인 감정조절방법이 공격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자녀체벌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체벌 후의 심정은 자녀체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경험적 자료가 대체로 모형에 적합하였지만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한차례의 수정으로 최종모형을 확정하여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잘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변수와 자녀체벌과의 인과관계 경로를 적절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받은 경험은 공격성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벌을 많이 받을수록 공격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체벌받은 경험과 같이 공격적인 상황에 개인이 접하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는 등(Bandura, 1973; Milner & Chilamkurti, 1991)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적인 양육경험이 충동적인 성격을 갖

게 되어 높은 수준의 분노와 충동을 표현한다(O'Leary, 1993에서 재인용)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공격성은 유전적인 기질로서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적인 양육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 본 모형이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받은 경험은 자녀체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격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체벌받은 경험이 자녀체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공격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0여년 동안에 진행된 '세대간 전이' 가설에 대한 논쟁에서 전이를 지지하는 입장(Carroll, 1977; Gillespie et al., 1977; Simons, Whitbeck, Conger, & Chyi-In, 1991;

Webster-Stratton, 1985)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이나 학대를 많이 받은 부모들은 공격적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체벌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에 받은 체벌경험을 모델링을 통해 학습(Bandura, 1973)하고 있다가 자녀양육 상황에서 과거에 경험한 그대로 재현하게 됨으로써 세대간에 전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체벌 후 심정을 조사한 자녀관은 자녀 체벌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체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을수록 자녀체벌을 덜 하고, 체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체벌을 많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벌로 인해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체벌 순간의 감정이 진정된 후에 후회 또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자녀를 체벌할 기회가 있을 때 체벌을 적게 할 것으로 추측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비교할 만한 연구가 없어 후속 연구를 통해 관계를 입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격성은 자녀체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은 자녀체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녀를 많이 체벌하고 있었다. 이는 공격성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쳐서 (Belsky, 1980) 공격성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많이 체벌하지만,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매우 강한 체벌의 경우에 공격성이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학대(또는 체벌)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이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녀에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한다(Milner et al., 1991)

는 연구결과와는 체벌받은 경험에서만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격성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후천적으로 습득된 부분이 함께 자녀체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정조절방법이 자녀체벌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모형을 수정한 결과 감정조절방법은 공격성에 부적인 효과가 유의하였고, 자녀체벌에는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공격성을 덜 표출하게 되어 자녀체벌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감정조절방법은 공격성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만한 연구는 없지만, 이는 공격성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인성 특성이거나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일지라도 긍정적인 방식의 감정조절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자녀체벌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녀체벌은 체벌 후 심정을 의미하는 자녀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체벌을 많이 할수록 체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적지만, 단순상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학대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체벌은 자녀관과 상관이 없어 본 연구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벌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수치심을 느낀다는 Muller(1993)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합치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통제를 위해 흔히 하고 있는 수준의 체벌을 많이 하는 부모들은 체벌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행위로 인식하여 미안한 마음을 적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체벌받은 경험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은 자녀체벌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감정조절방법으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체벌받은 경험은 자녀체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체벌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부부싸움 목격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관, 공격성, 감정조절방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자녀체벌에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체벌 후 심정을 나타내는 자녀관은 자녀체벌에, 자녀체벌은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등 상호간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정조절방법이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녀체벌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체벌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공격성과 공격성을 통한 체벌받은 경험으로 나타나, 발달력보다 개인의 특성이 자녀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모형이 '세대간 전이' 가설을 지지하지만 성격적 특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체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관과 공격성을 통한 감정조절방법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체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을 정의하는데 있어 동기나 행위(정도, 방법, 감정수반) 및 결과(아동에 미친 영

향, 우발성, 손상여부)(안동현 등, 1998)를 고려하지 못하고 체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둘째, 신체적인 학대를 측정하는 도구로 체벌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같은 조사도구로 다른 내용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불성실한 응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의 발달력을 측정하는 데에 어머니의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의 양육은 부모가 함께 담당하고 있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관한 정보는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수십 년 전의 부모들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없이 회상을 통해 조사한 것이므로 많은 부분이 잊혀졌을 수도 있고, 회상하고 싶지 않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대상 아동의 연령층에서 지금도 체벌이 많이 진행되므로 체벌이 거의 끝난 연령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발달력이 인성 및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체벌이 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지만 감정조절방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복자(1992).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56-72.
- 김영철(1993). 부모체벌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직할시내 국민학교 5·6학년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동현, 박현선, 이현정(1998). 한국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37(4), 661-673.
-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 전미리(1998). 체벌에 대한 조망과 스트레스 아동권리연구. 2(1), 57-65.
- 한지숙(1994). 체벌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두승(1983). 한국 사회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6.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s.),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ger, A. M., Knutson, J. F., Mehm, J. G., Perkins, K. A. (1988). The self-report of punitive childhood experiences of young adults and adolescents. *Child Abuse Neglect*, 12, 251-262.
- Carroll, J. C. (197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The long-term effects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 289-299.
- Chung, J. M., & Lee, J. Y. (1998). Perceptions of childhood corporal punishment: A survey of Korean College Students. Presented poster paper in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hild Abuse & Neglect,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Auckland: New Zealand.
- Dietrich, D., Berkowitz, L., Kadushin, A., & McGloin, J. (1990). Some factor influencing abusers' justification of their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14, 337-345.
- Erlanger, H. S. (1974). Social class and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aring: A re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68-85.
- Gelles, R. J. (1982).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Implications for medical professionals. In E. H. Newberger(Ed.), *Child abuse*.
- Gillespie, D. F., Seaberg, J. R., & Berlin, S. (1977). Observed causes of child abuse. *Victimology*, 2, 342-349.
- Graziano, A. M. & Namaste, K. A. (1990). Parental use of physical force in child discipline: A survey of 679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4), 449-463.
- Hirsh, M. F. (1981). *Woman and Viole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Hyman, I. A. (1987).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rporal punishment. In Brassard, M. R., Germain, R., & Hart, S. N.(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pp.59-68. New York: Pergamon Press.
- Kadushin, A., & Martin, J. A.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49.

- Kempe, R. S. & Kempe, C. H. (1978). *Child Abuse*.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 Milner, J. S., & Chilamkurti, C. (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45-366.
- Muller, R. T. (1993). Shame and aggressive behavior in corporal punis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
- O'Leary, K. D. (1993).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and levels of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1-30).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adbill, S. (1974). A history of child abuse and infanticide. In R. Helfer and C. H. Kempe(Eds.), *The battered child* (2nd ed.).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Chyi-In, W.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Spielberger, C. & London, P. (1983). State-Trait Anger Scale. In Corcoran, K. & Fischer, J. (1987, eds.),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The Free Press. New York, 336-339.
- Straus, M. A. (1994).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families*. San Francisco: Jossey-Bass/Lexington.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 company.
- Webster-Stratton, C. (1985). Comparison of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with conduct-disorder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59-69.